

한국농어촌공사, 몽골에도 K-농업기술 전파

-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수의과대학 內, 동물진료센터 신설, 진료장비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원된 동물진료센터, 진단·치료 장비 등을 몽골 정부에 공식 인계한다.

*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 역량강화 사업: 우리나라 수의 진료산업 발전 노하우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ODA 사업을 이끈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업은 ‘18년 1월 실시한 제7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본 사업 준공을 계기로 양국 간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동물진료센터 구축 △진료장비 지원 △동물 진단·치료 장비 운영 방법 교육 △농장동물 질병예방 및 검진 방법 교육 등을 수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몽골 정부는 한국형 선진 수의 진료 기술을 활용한 본격적인 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몽골은 전통적인 목축 국가로 안전한 축산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가축 질병 사례가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물진료센터를 신축하고 이동식 수의 진료, 전문가 파견·교육 등을 통해 수의 분야 역량 향상의 계기가 마련됐다.

준공식 기념행사에서 양국 서드바타르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몽골의 수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인 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장은 “본 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선진 수의진료 경험 전수가 몽골 수의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ODA 사업을 통해 선진화된 K-농업기술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책임자	부 장	손혁준 (061-338-6521)
		담당자	대 리	이동훈 (061-338-6529)